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시게

<54> 반려동물 식품관리사가 만드는 특별한 케이크

# 여름철 강아지를 위한 ‘안성맞춤’ 건강 간식

락토프리 우유로 크림 만들고  
쌀가루는 최소화, 소금간 하지 않아  
단호박·닭가슴살·오리고기 등 사용  
예쁜 디자인에 영양성분까지 고려



우리집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뱅크고양이 양순이’

## 앞발로 문을 쓰윽~ ‘놀아달라’ 눈빛 발사



우리집 마네 양순이는 표범을 떠올리게 하는 멋진 털 무늬를 가진 뱅크고양이입니다. 이름이 양순이라서 암컷으로 오해를 받지만 올해로 4살 된 듄직한 남동생 이랍니다.

큰 형인 저와 온종일 붙어있어서 가족들, 특히 엄마의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말이면 형의 팔베개를 하고 꿀잠 자는 게 취미인 아이입니다. 양순이가 큰 형 다음으로 좋아하는 가족은 둘째 형이예요. 큰 형이 없을 땐 아쉬운대로 둘째형에게 다가가 놀아달라고 간절한 눈빛과 함께 애교를 부립니다.

양순이의 주 특기는 자유자재로 문을 열고 집안 투어하기 예요. 방문을 닫고 게임 좀 하려고 하면 사람처럼 발뺌 일어나 앞발로 태연스럽게 문을 열고 집안을 시도합니다. 그리고는 컴퓨터책상 위로 올라와 마우스를 깔고 앉아 숨기거나 마우스 움직이는 손을 양양 물기도 하지요. 이럴 때 보면 엄마의 지시를 받아 게임 못하게 보초서는 것 같아 우습기도 해요.

양순아! 언제라도 형 게임 방해해도 좋으니 우리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자.

<진현호·광주시 동구 월남동>

복슬복슬 새하얀 털에 핑크리본핀을 머리에 꽂은 귀여운 말티즈 한 마리에 테이블 위에 누워 있다. 체형이 작은 티켓강아지도 있다지만 이견 크기가 작아도 너무 작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말티즈 모형의 케이크다. 반려동물에게 먹일 특별한 간식이라는데, 달콤한 크림케이크를 먹어도 되는 걸까? 말이라도 아니었을까 걱정이 앞선다.

“일반 생크림이 아닌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를 사용한 크림으로 만들었어요. 케이크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반려동물들의 영양을 따져 사용했기 때문에 건강식이예요. 축하해 주고 싶은 특별한 날, 사료 대신 급여하면 좋아할 겁니다.”

보기에도 먹이에도 아까운 말티즈 모형 케이크를 만든 정자은(41)씨는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펫반’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특별한 간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반려동물 식품관리사다. 반려동물 식품관리사는 식재료에 담긴 영양을 연구해 반려동물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동물들에 따라 질병이 있을 경우 급여해서는 안되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양학을 공부해 보호자들에게 안내해주기도 한다.

다양한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 시킨 화식을 만들거나 사료만 먹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천연 간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은씨의 주 특기는 기념일에 먹일 수 있는 특색인 수제 케이크다.

“케이크에 사용되는 재료는 단호박이나 닭가슴살, 오리고기 등 모두 사람이 먹는 식재료만 사용합니다. 다만 반려동물들에게 줄 때는 간을 전혀 하지 않을 뿐이죠. 칼로리가 높지 않게 쌀가루나 우유크림도 최소화하고 있어요.”

▶반려동물식품  
관리사 정자은씨가 락  
토프리 우유 크림을 짜서  
영양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자은씨가 만드는 케이크는 특별하다. 반려동물의 얼굴이 입체적으로 케이크에 표현되기 때문이다. 동물 케이크는 견종에 따라 털을 어떻게 표현하고 눈코입을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 완성품이 달라진다.

말티즈의 경우 동그란 얼굴에 한 가닥 한 가닥 털을 가지런하게 하고 눈과 코는 같은 크기로 해준다. 비숀은 동그란 얼굴에 입 주변에 털이 많고 하이바(헬멧)를 쓴 듯한 머리나 양쪽 귀가 툭 튀어나온 듯한 ‘귀퉁튀’ 형태로, 털은 터치를 달리해서 굵고 부드럽게 표현한다. 포메라니안은 몽푹한 코와 귀여운 삼각형 귀를 특징으로 잡고, 털이 복슬복슬한 경우 역삼각형을 만들어서 뽀족뽀

족튀어나오게 하는 터치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순수 만든 반려동물용 휘핑크림을 이용하는데 속성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우유를 한번 끓여서 굳혔다가 갈아서 크림화를 시키고 다시 2-3시간이 지난 다음 사용해야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줄어들면서 갈라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예약 주문한 시간에 맞춰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얀 강낭콩으로 만든 콩크림을 사용해주고 있다.

크림에 색을 넣어줄 때는 100% 천연 파우더를 이용한다. 검정색은 백년초나 치자, 스피루리나 분말을, 노란색은 단호박, 빨간색은 치자나 비트 분말을 섞어 준다.

탄수화물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고양이에게는 쌀가루와 계란 대신 기호에 맞게 화식으로 제작한다.

화려하면서도 예쁘게, 영양성분까지 고려한 반려동물용 케이크는 무더운 여름철 입맛을 잃은 아이들에게도, 고통으로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안성맞춤 특식이 될 수 있다. 적당한 크기로 나눠서 한번에 조금씩 급여하는 게 좋으며 나머지는 한달 정도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

정자은씨는 “특별한 날 특식으로 케이크를 선물해주는 보호자들이 늘면서 많을 때는 하루에 6-7개씩 주문이 들어올 때도 있다”며 “케이크를 포함해 모든 간식을 급여할 때는 알레르기 유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육류와 채소를 적당히 섞어준 영양식은 주 2-3회 정도 사료와 섞어 먹이면 아이들의 건강에도 좋으며 이때는 평소 급여하던 사료의 양은 줄여주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이보람 기자 boram@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